

# 문학 공부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국어 강사 박정범

## 1. 문학의 특징을 이해하자.

가끔 게시글을 읽다보면 안타까운 현상을 목도하게 된다. 인강을 들으려고 하는데 누가 좋나요? M사 1타 vs D사 1타. 돌아오는 답변은 뻔하다. 자신이 들었던 혹은 자신의 성적을 올려줬던 강사의 이름이 답변으로 오른다. 인생이 달린 문제라 답답한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 자신의 성적을 올려줄 강의를 찾고 있다면 맛보기 1-2강 정도는 직접 들어보고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닐까? 쓴소리가 너무 길었다. 본론부터 이야기하면 문학 공부를 하면서 그것의 특징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있지 않다면 심부름을 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아이와 같다는 것이다. 문학의 특징이 매년 수능 문제로 출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은 이를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처음부터 쓴소리 했다고 너무 불쾌해 하지 말고 새벽에 와이프와 칭얼대는 아이의 눈치를 보며 하나라도 더 도움이 되고자 타이핑을 치고 있는 쌤의 마음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T\_T)

### 1-1 시가 문학의 특징

#### ① 시는 곧 상황과 반응이다.

대부분의 검정 교과서 '국어1' 과정에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책이다.) 문학의 갈래를 한 단원으로 할애해서 갈래별 특징을 비중있게 실어 놓았다. 한 학기 교과 과정의 약 1/6에 해당하는 많은 양이다. (이러한 학습 과정은 2학년 문학 교과서에 그대로 이어진다.)

또한 시가 문학의 각 단원들 학습 활동에는 '화자의 상황을 찾고 그에 대한 화자의 반응을 찾아라.'라는 문항이 꼭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곧 시에서 묻고자 하는 것이 **상황과 그것에 대한 화자의 반응 (정서 혹은 태도)**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스스로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목표와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출제하되, 폭넓고 다양한 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한다던 평가원은 수능날 어떤 문제를 낼 것인가? 기출을 통해 한번 살펴보자. (이하 **상황은 빨간색**, **반응은 파란색** 명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7년 수능]

(가)

만약에 나라는 사람을 유심히 들여다본다고 하자  
그러면 나는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먼 산정에 서 있는 마음으로 나의 자식과 나의 아내와  
그 주위에 놓인 잡스러운 물건들을 본다

그리고

나는 이미 정해진 물체만을 보기로 결심하고 있는데  
만약에 또 어느 나의 친구가 와서 나의 꿈을 깨워 주고  
나의 그릇됨을 꾸짖어 주어도 좋다

함부로 흘리는 피가 싫어서  
이다지 남아빠진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리라  
먼지 낀 잡초 우에  
잠자는 구름이여  
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철 늦은 거미같이 존재 없이 살기도 어려운 일

방 두 칸과 마루 한 칸과 말쑥한 부엌과 애처로운 처를 거느리고  
외양만이라도 남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이다지도 쑥스러울 수가 있을까

시를 배반하고 사는 마음이여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 보고 살피볼 수 없는 시인처럼 비참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거리에 나와서 집을 보고 집에 앉아서 거리를 그리던 어리석음도 이제는 모두 사라졌나 보다  
날아간 제비와 같이

날아간 제비와 같이 자국도 꿈도 없이  
어디로인지 알 수 없으나  
어디로이든 가야 할 반역의 정신

나는 지금 산정에 있다 —  
시를 반역한 죄로  
이 메마른 산정에서 오랫동안 꿈도 없이 바라보아야 할 구름  
그리고 그 구름의 파수병인 나.

- 김수영, <구름의 파수병>

1. <보기>를 고려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구름의 파수병」에는 **시와 생활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진솔한 자기 성찰이 드러난다. 화자는 ㉠**생활에 몰두하려는 자아와 이러한 자아를 극복하고자 하면서 ㉡시를 새롭게 지향하려는 자아를 등장시킨다**. ㉠은 시선을 고정하려는 태도나 움츠러들어 있는 이미지로 나타나는데, ㉠에서 벗어나 ㉡으로 변모하고자 하는 화자는 ‘날아간 제비’를 떠올리다가 ‘반역의 정신’을 추구하는 데 이른다.

② ‘나는 이미 정해진 ~ 결심하고’는 ㉠과 ㉡의 갈등을 해소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낸 것이겠군.

[정범T 해설]

정답은 2번이었다. 시는 곧 상황과 그것에 대한 반응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를 해석해 보자.

먼저 보기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화자는 시와 생활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상황)**

**그리고 화자는 생활에 몰두하려는 ㉠의 모습에서 시를 지향하려는 ㉡의 모습으로 변모하려고 한다. (반응)**

<보기>를 통해 볼 때 ‘날아간 제비’는 이러한 변화를 유발하는 대상이다. 즉 위 시는 변모 전과 변모 후를 ‘제비’를 기준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정답인 2번 선택지를 한번 살펴보자. EBS 해설을 빌리자면 이렇다.

[EBS 해설] 3연의 ‘나는 이미 정해진 물체만을 보기로 결심하고’에서 ‘이미 정해진 물체’는 2연의 ‘잡스러운 물건들’로 볼 수 있다. <보기>에서 ㉠은 시선을 고정하려는 태도로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2연의 ‘잡스러운 물건들’은 화자의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대상이므로 ‘나는 이미 정해진 물체만을 보기로 결심하고’에서는 생활에 시선을 고정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나는 이미 정해진 물체만을 보기로 결심하고’가 ㉠과 ㉡의 갈등을 해소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간략하게 말하면 ‘나는 이미 정해진 물체만을 보기로 결심하고’라는 표현에서 화자는 ㉠을 반영한 태도만 드러날 뿐 ㉠과 ㉡의 갈등을 해소한 모습(태도)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황에 대한 반응을 잘못 표현한 것이다.**

또한 <보기>를 제대로 독해했다면 ㉠에서 벗어나 ㉡으로 변모하고자 하는 것은 ㉡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과 ㉡을 모두 벗어나고자 한다는 말은 어폐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2017년 수능 문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7년 수능]

좌우에 탁자 놓아 **만권 서책** 쌓아 놓고  
**자명종**과 **자명악**은 절로 울어 소리하며  
좌우에 당전(唐氈) 깔고 **담방석**과 **백전요**며  
이편저편 화류교의(樺榴交椅) 서로 마주 걸터앉고  
거기 사람 처음 인사 차 한 그릇 갖다 준다  
화차종에 대를 받쳐 가득 부어 권하거늘  
파르스름 노르스름 향취가 만구하데  
**저희들과 우리들이 언어가 같지 않아**  
**말 한마디 못해 보고 덤덤하니 앉았으니**  
귀머거리 병어린 듯 물끄러미 서로 보다  
천하의 글은 같아 필답이나 하오리라

(중략)

관소로 돌아와서 회환(回還) 날짜 택일하니  
사람마다 짐 동이느라 각방은 분분하고  
흥정 외상 셈하려 주주리는 지저귄다  
장계(狀啓)를 발정(發程)하여 선래군관(先來軍官) 전송하고  
추칠월 십일일에 회환하여 떠나오니  
한 달 닳새 유하다가 **시원하고 상연(爽然)하구나**  
천일방(天一方) 우리 서울 창망하다 갈 길이어  
풍진이 분운(紛紜)한데 집소식이 돈절하니  
사오 삭(朔) 타국 객이 귀심(歸心)이 살 같구나  
승문문 내달아서 통주로 향해가니  
울적에 심은 곡식 추수가 한창이요  
서풍이 샅샅하여 가을빛이 쾌히 난다

- 홍순학, <연행가>

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객지에서의 낯선 풍물 및 경험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고 회환할 때의 심정을 서술하고 있다.

[정범T 해설]

정답은 3번이다. 시는 곧 상황과 그것에 대한 반응이다. 기억하고 다시 한번 시를 해석해 보자.

중략 앞 부분을 보면 화자는 ‘만권 서책, 자명종, 자명악, 담방석, 백전요’ 등등 사물들이 놓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또한 ‘저희들과 우리들이 언어가 같지 않아 말 한마디 못 해 보고 덤덤하니 앉았으니’를 통해 **화자는 낯선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 추론할 수 있다. (상황)**

그리고 중략 이후에는 평가원이 작성한 듯 해석이 어려운 문장들을 난발한다. 선생님도 온전한 해석보다는 불필요한 정보들을 삭제해 가며 읽었다. 다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원하고 상연하구나!**’라는 **정서적 반응은 읽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상연하다’는 단어 뜻이 어렵지만 ‘시원하다’를 바탕으로 추론해 줘야 한다.**

그럼 정답을 한번 살펴보자. 또 EBS 해설을 빌리자면 이렇다. (죄송합니다 T\_T)

[EBS 해설] 이 글에서 화자는 청나라에서 자명종, 자명약 같은 낯선 풍물을 접하고, 청나라 사람들과 말이 통하지 않아 필담을 나누고, 황궁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한 체험에 대한 다양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회한 날짜를 정해 귀국할 때의 시원하고 상쾌한 심정을 서술하고 있다.

**간략하게 말하면** 객지(상황)에서 화자가 느끼는 정서(반응)를 이해했냐는 것이다. 화자는 중략 앞에서 객지의 낯선 경험을 열거하고, 중략 후에는 회한할 때의 정서를 이야기하고 있다. 어려운 어휘를 물어보는 것도 아니었고, 구체적으로 '회한할 때 심정이 어땠니?'를 물어보는 문제도 아니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고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적지 않게 당황했었던 문제이다.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2017년 고전과 현대 모두 화자의 상황과 반응에서 문제가 출제되었고, 모두 정답 선지였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6년 수능]

[가]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아침이면,

어둠은 온갖 물상(物象)을 돌려주지만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

**무거운 어깨를 털고  
물상들은 몸을 움직이어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금(金)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아침이면,

세상은 새벽을 한다.

- 박남수, <아침 이미지 1>

[나]

┌ **텔레비전을 끄자**

[A] **풀벌레 소리**

└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 환하다

별빛이 묻어 더 낭랑하다

┌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B]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C]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 어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발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

┌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D]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하루살이들처럼 진동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새카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 크게 밤공기 들이쉬니

[E]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

- 김기택,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정범T 해설]

자! 이제 반사적으로 상황과 반응을 정리해 보자.

(가)는 **어둠이 사물들을 낳고, 아침이면 어둠은 사라지지만 남아 있는 사물들이 즐거운 잔치를 벌인다는 내용(상황)이다.**

**화자의 반응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관찰자로서 바라보기 때문이다. 다만, 사물들의 모습을 즐거운 잔치라고 표현했으므로 화자 또한 그렇지 않을까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나)는 **화자가 텔레비전을 끄고 평소에 듣지 못한 풀벌레 소리를 듣고 있는 상황이다.**

**또 그동안 듣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과 부끄러움도 엿보인다.**

그럼 문제와 정답을 살펴보자.

3. [가], [나]의 ‘어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⑤ [가]에서는 ‘어둠’의 생산력을, [나]에서는 ‘어둠’의 포용력을 앞세워 ‘어둠’이 밝음에 순응하는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정답은 5번이다. EBS 해설을 보자. (이제 슬슬 뻘뻘하다 ;;)

[EBS 해설] (가)의 ‘어둠’은 모체로 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력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나)의 ‘어둠’은 풀벌레들을 품고 있는 포용력 있는 배경임과 동시에 화자에게 풀벌레 소리를 느끼게 해주는 배경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때 (가)의 ‘어둠’은 ‘굴복한다’라는 표현을 통해 밝음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나)의 ‘어둠’은 풀벌레 소리와 화자를 모두 포용하고 있는 기능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밝음에 순응하는 모습을 부각한다고 볼 수는 없다.

**쉽게 말해 (나)는 어둠이 밝음에 순응하는 모습(상황)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묻고 있다.**

다음 문제와 정답도 살펴보자.

4.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④ ‘태양의 즐거운 울림’은 하늘의 태양이 지상에 있는 사물들과 서로 어울려 생기를 띠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정답은 4번이다. **물상들은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고 그러한 잔치에 태양 또한 즐거운 울림으로 사물들과 서로 어울리는 모습(상황)을 드러낸 것이다. 마찬가지로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묻고 있다.**

또 다른 문제도 살펴보자.

5. [나]의 [A]~[E]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③ [C]에서 화자는 ‘들리지 않는 소리’의 주체들이 화자 자신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고 있어.

정답은 3번이다. **주체들이 화자 때문에 소통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라 주체들과 화자가 소통할 수 없게 된 것(상**

황)에 대한 아쉬움 및 반성(반응)을 느끼고 있는 표현이다. 또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묻고 있다.

2016년 현대시 문제는 무려 3문제나 상황과 반응에서 문제가 출제되었다.

마지막으로 3년 전 수능 문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5년 수능]

(가)

흙이 풀리는 내음새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릴 불러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떠내려간다.

**진중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듯하리라.

**고향 가차운 주막에 들러**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라.**

양귀비 꺾어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지운다.

간간이 켜나비 우는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이를 휩쓸어간다.

**예제로\* 떠도는 장꾼들이여!**

**상고(商賈)하며 오가는 길에**

**혹여나 보셨나이까.**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새……**

- 오장환, 「고향 앞에서」-



(나)

**귀향이라는 말을 매우 어설피하며 마당에 들어서니** 다리를 저는 오리 한 마리 유난히 허둥대며 두엄자리로 도망간다. 나의 부모인 농부 내외와 그들의 딸이 사는 슬레이트 흙담집, 겨울 헤어름의 집 안엔 아무도 없고 방바닥은 선뜩한 냉돌이다. 여덟 자 방구석엔 고구마 뒤주가 여전하며 벽에 메주가 매달려 서로 박치기한다. **허리 굽은 어머니는 냇가 빨래터에서 오셔서 콩깍지로 균불을 피우고 동생은 면에 있는 중학교에서 돌아와 반가워한다.** 닭똥으로 비료를 만드는 공장에 나가 일당 서울 광주 간 차비 정도를 버는 **아버지는** 한참 어두워셔야 귀가해 장남의 절을 받고, 가을에 이웃의 텃밭에 나갔다 팔매질 당한 **다리병신 오리를 잡는다.**

- 최두석, 「낡은 집」-

[어휘풀이] 1) 예제로 : 여기저기로.

[정범T 해설]

상황, 반응 정리 고고!

(가)는 **고향을 앞에 두고서도 그곳을 가지고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가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 (반응)

(나)는 **화자가 오랜만에 귀향한 상황** 속에서 이를 따뜻하게 반겨주는 가족들의 모습이 드러난다. 아버지는 오리를 잡고, 어머니는 균불을 피워주고, 동생은 반겨주지만 **귀향이라는 말이 어설피다거나 부모를 '농부 내외', 동생을 '그들의 딸'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에서 가족에 뿐만 아니라 낯선 느낌(반응)도 읽을 수 있다.**

6. (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화자는 낯선 행인에게서 친근감을 기대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익숙했던 공간에 들어서며 낯선 느낌을 받는다.

정답은 1번이다. (가)는 2연에 고향 가까운 **나룻가를 오가는 행인에게서조차 온기를 느끼고 싶어 하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친근감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반응)**을 알 수 있고, (나)에서 화자는 **'귀향이라는 말을 어설피하며 마당에 들어서니'**를 통해 **낯선 느낌(반응)**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자!

시를 읽는 방법을 배우지 않은 학생은 없다. 다만 실전에서 문제로 적용하는 친구는 많지 않다. **시험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출제자는 핵심을 바탕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그것들을 파생시켜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시가 어렵든 쉽든 수능 날 혹은 모의고사 날 명심하자.

**“그래봤자 문제는 상황과 반응에서 나오겠지 뭐!”**

간단한 Q&A

Q. 최근 3개년 모두 동일한 테마로 문제가 출제된 것은 우연이 아니냐?

A. 아닙니다! 시에서 묻고자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기출을 분석하시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만 찾지 마시고 무엇을 문제로 물어보는지 확인하십시오!

Q. 정답만 가지고 언급했기 때문에 상황과 반응이 쉽게 보이는 거 아니냐?

A. 맞습니다. 하지만 '상황과 반응이 한 문제는 나온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를 보는 눈이 분명 다릅니다. 시가 문학을 공부할 때 상황, 반응을 제대로 찾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Q. 넌 누구냐?

A. 오르비 클래스 국어 영역 강사 박정범입니다. 현재 개념 노트 1.3 강좌를 통해서 엄청난 파격력을 낼 수 있다고 자부하고... 읊읍!!!